

이야기 11 : 사도 바울

주제말씀
[사도행전 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편지를 써 주십시오.”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시게 환한 빛이 비추었어요.

사울은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강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 때,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 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척 놀랐어요. 볼 수 없게 된 사울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간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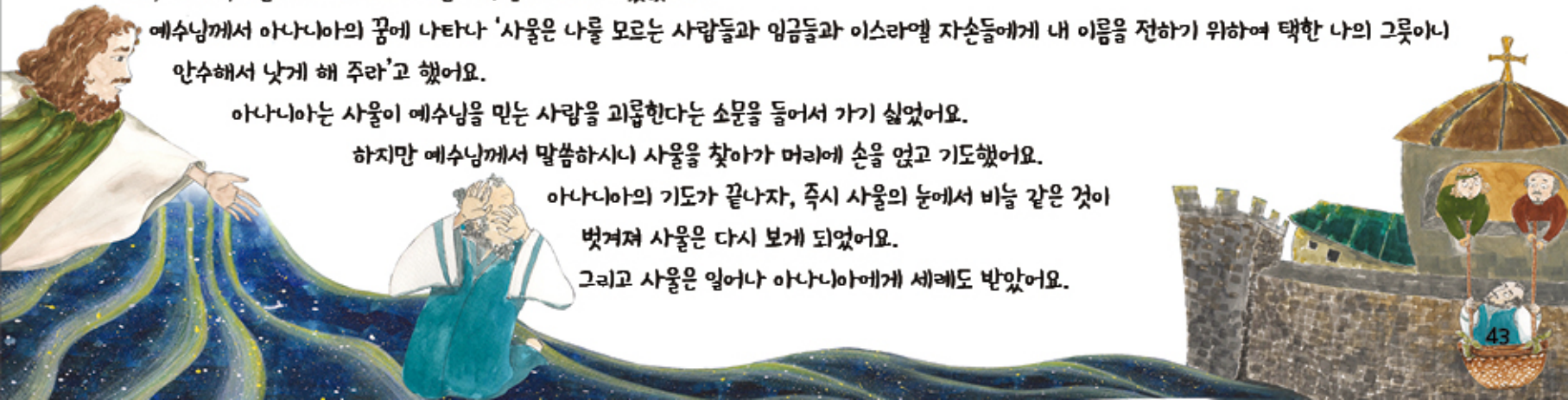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꿈에 나타나 ‘사울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
안수해서 낫게 해 주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들어서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울을 찾아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아나니아의 기도가 끝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찾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어요.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사람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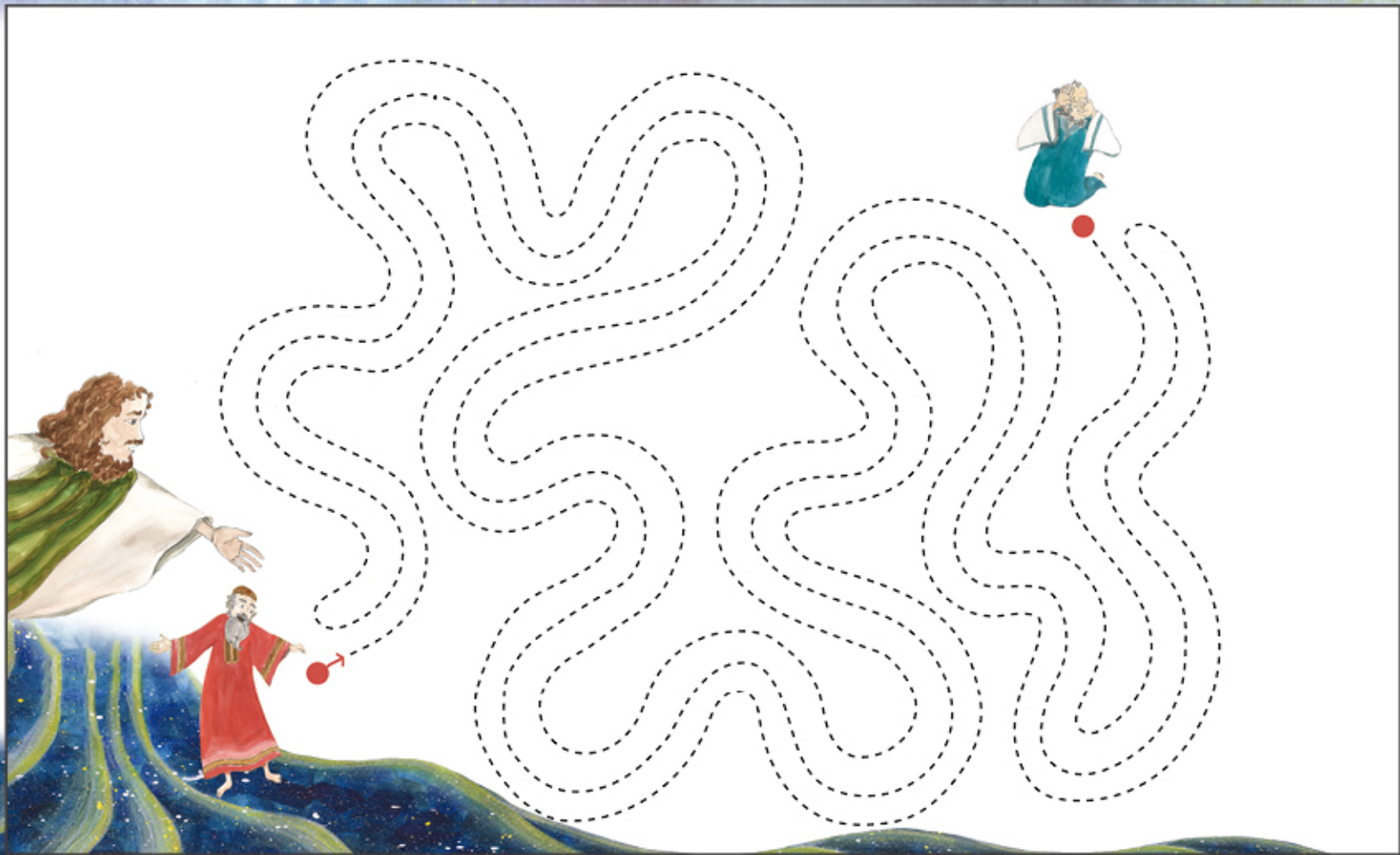
이 사울이 바로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썼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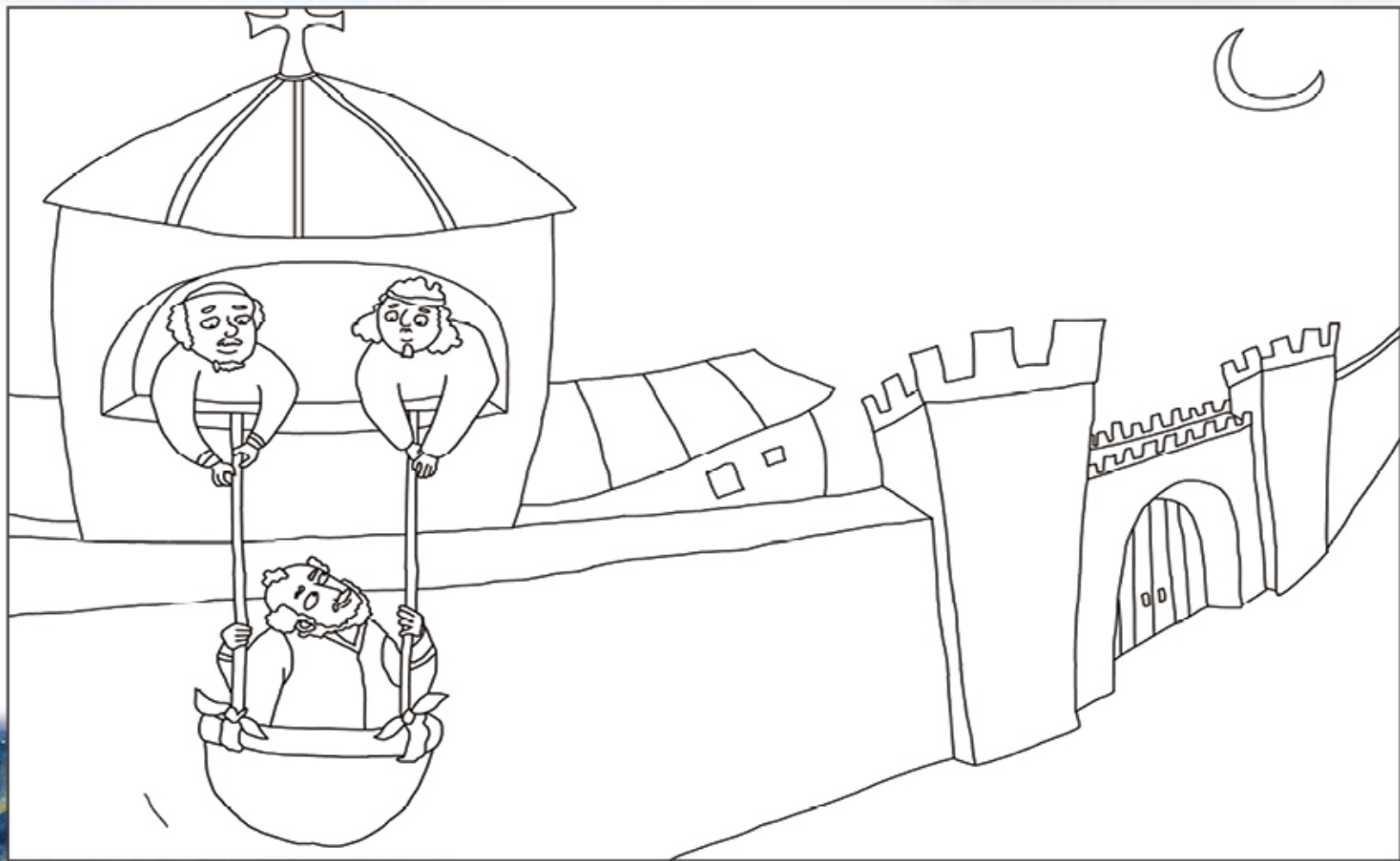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워보세요. (사도행전 9:15)

택한 나의 그릇이라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이름 :